

수원에서 밤을 길게 보내 본 사람이라면 익숙할 법한 네온의 결, 좁은 계단참의 음영, 각테일 잔에 맺히는 반짝임이 있다. 셔츠룸의 내부는 보통 낮은 조도와 혼합광, 유리와 거울, 색온도 변화가 계속 섞이는 도전적인 환경이다. 그렇다고 카메라를 꺼낼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이런 제한이 감각을 키운다. 수원 셔츠룸, 그 주변 골목을 담아내려면 장비보다 매너와 관찰력이 먼저다. 사진은 결국 사람과 공간 사이의 신뢰에서 나온다.

아래에 적은 내용은 실제로 수원 인계동과 매산로, 행궁동 일대에서 촬영하며 쌓은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정리했다. 포토 스팟, 구체적인 노출 가이드, 스마트폰과 카메라 설정, 그리고 무엇보다 촬영 매너까지 차분히 훑어본다.

## 먼저, 촬영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한다

셔츠룸은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의 경계에서 있다. 입장 전, 또는 자리 배정 직후에 매니저에게 촬영 가능 범위를 명확히 묻는다. 업장마다 기준이 다르다. 어떤 곳은 외부 간판과 복도, 바 카운터 일부만 허용하고, 어떤 곳은 손님과 직원이 나오지 않는 구도라면 테이블 위 디테일까지 허용하기도 한다. 반대로, 내부 촬영을 일절 금지하는 곳도 있다. 허용 범위를 확인했다면 그 선을 반드시 지킨다. 이게 촬영 매너의 출발점이다.

내가 자주 가는 인계동의 한 곳은 영업 시작 10분 전 비어 있는 바 구역을 잠깐 열어 준다. 인원이 적은 평일 저녁, 사전 문의를 해 두면 가능했다. 그 10분 동안 바탑, 네온 사인, 유리 선반을 위주로 앵글을 잡았다. 사람 얼굴, 유니폼 로고, CCTV가 프레임에 걸리지 않도록 철저히 골라 담는 것이 룰이었다. 덕분에 깔끔한 소재를 얻고, 영업 시간에는 카메라를 닫고 즐기는 상호 신뢰가 생겼다.

## 사진이 잘 나오는 자리와 시간

셔츠룸 내부는 조명이 좌석마다 다르다. 조명이 위쪽에서만 떨어지는 자리보다, 테이블 램프나 사이드 라이트가 있는 좌석이 사진에 유리하다. 빛이 측면이나 뒤에서 들어오면 유리잔의 림라이트가 살아나고, 셔츠의 질감도 입체적으로 드러난다. 매니저에게 조명이 조금 더 있는 자리로 부탁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바 카운터 쪽 하이체어 라인, 복도 네온 사인 근처 대기석, 룸 앞 전실은 대체로 조도가 높다.

시간은 오픈 직후 30분이나 피크 타임 직후의 잠깐이 좋다. 너무 한산하면 분위기가 덜하고, 너무 붐비면 촬영 자체가 불편하다. 비가 오는 날은 외부 간판과 유리창 반사가 특히 예쁘다. 우산 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젖은 보도블록에 비친 네온은 자연스러운 보케를 만든다. 다만 젖은 바닥과 금속 계단은 미끄럽다. 장비보다 발밑이 먼저다.

## 수원에서 그림이 되는 포토 스팟

셔츠룸 자체를 찍지 않더라도 분위기를 전후로 담아두면 스토리가 생긴다. 이동 동선에 이런 스팟을 끼워 넣어 보자.

인계동 바 스트리트의 네온 골목. 보행자 밀도가 높은 주말 밤보다는 평일 밤 9시 전후가 여유롭다. 상부 간판과 하부 쇼윈도의 색온도가 다른 경우가 많아, 화이트 밸런스를 자동으로 두면 화면이 회색으로 죽는다. 메뉴판 흰색 면을 화면 한가운데 두고 수동 WB를 맞춘 뒤 촬영하면 색이 살아난다.

수원역 로터리 인근 유리 파사드. KTX 출입구 방향 유리벽은 야간에 내부 조명이 반사되어 이중 이미지가 생긴다. 스마트폰을 유리면에 거의 붙여 찍으면 내부와 외부가 섞인 레이어가 만들어져 도심적 무드를 엿기 좋다. 얼굴이 인식될 정도로 선명하면 사용을 자제하고, 반사만 활용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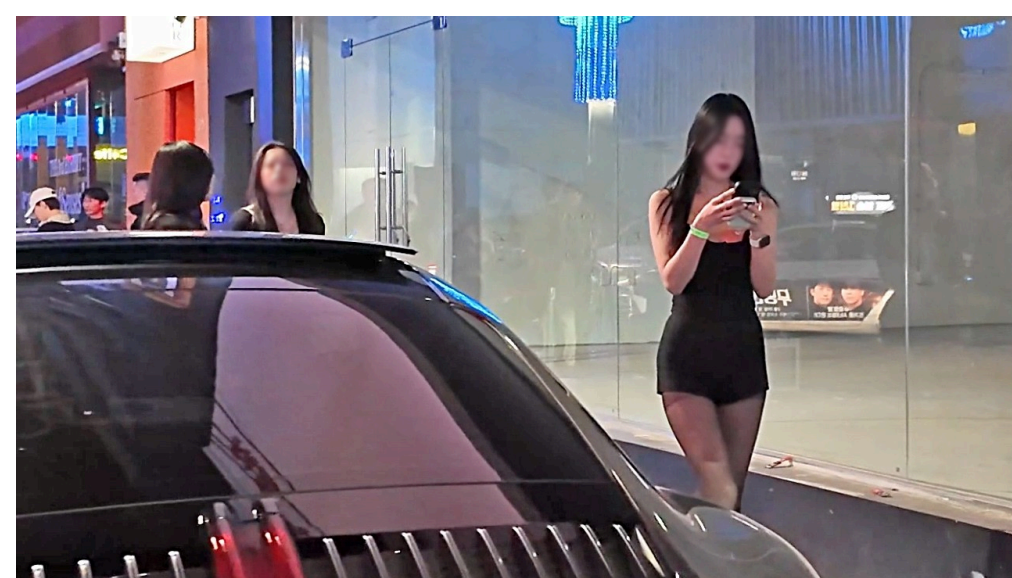
팔달문과 행궁동 사이 이음길. 한옥 지붕선과 현대식 간판이 한 프레임에 들어온다. 셔츠와 넥타이 디테일 샷을 인물 없이 연출하기 좋다. 밤 10시 이후 인파가 줄면 가로등 아래의 노란 조명과 간판 빛이 잘 섞인다.

대형 간판 아래 금속계단. 셔츠룸이 입점한 건물의 외부 철제계단은 반복 패턴이 강해서 훌륭한 배경이 된다. 위로 올라가는 직선과 네온 반사가 만나는 지점에서 로우 앵글을 잡아 보면 의외로 힘이 있다.

촬영 코너의 미러 글라스. 익명성이 유지되는 수준의 움직임만 남기는 장노출을 시도하기 좋다. 삼각대가 어려우면 벽에 팔꿈치를 붙이고 1/8초까지 버텨 본다. 지나는 헤드라이트가 선을 그린다.

## 내부에서 성공하는 구도와 디테일

사람이 나오지 않거나 신원이 식별되지 않는 디테일로 접근하는 것이 기본이다. 셔츠룸이라는 이름이 암시하는 분위기를 살리되 사생활을 침범하지 않는 프레임을 고른다.



유리잔 림 하이라이트. 잔 입구의 얇은 선이 [광고 셔츠룸](#) 조명을 받는 순간이 있다. 상부 스포트와 바톱 간접 조명의 경계에 잔을 두고, 배경 네온이 선명하게 들어오도록 반대편으로 10도 정도 틀어 본다. 초점은 잔의 테두리에, 조리개는  $f/2$  내외가 좋다. 스마트폰이면 망원으로 살짝 당겨 배경 압축을 만든다.

셔츠 카프스 버튼과 테이블 텍스처. 카프스의 금속 반사가 조명을 받아 반짝일 때, 테이블의 우드 그레인 또는 대리석 결이 배경을 받친다. 손목을 자연스럽게 올린 상태에서 프레임 가장자리에 사선으로 배치하면 정적인 듯 고급스러운 느낌이 난다.

룸 넘버 플레이트, 복도 사인. 룸 앞의 숫자 타이포그래피, 화살표 사인, 바닥 조명선은 식별자 노출 없이 공간감을 전한다. 다만 매장명과 전화번호가 크게 들어간 경우는 피하자. 촬영 허용 범위에도 보통 이런 정보가 포함되면 제한된다.

네온을 배경으로 한 음료 실루엣. 네온 사인 문구가 읽히지 않을 정도로 아웃포커스를 주고, 전경에 잔을 반실루엣으로 둔다. RGB가 섞여 탁해지면 과감히 한 색만 살리고 나머지는 톤 다운한다.

거울 반사 프레임. 거울은 위험하다. 다른 손님이 비치기 쉽기 때문이다. 자신만, 혹은 손과 소품만 반사되게 앵글을 낮춰 제한하면 안전하다. 셀카는 지양하고, 디테일 반사컷 정도로 마무리한다.

## 저조도에서 노이즈를 억제하고 색을 살리는 법

셔츠룸의 조도는 5~50룩스 범위에서 움직인다. 노이즈와 모션 블러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 사람 움직임이 없는 정물 위주로 찍을 때는 셔터 속도를 과감히 낮출 수 있다. 미러리스나 DSLR에서는 1/15초 정도까지, 손떨림 보정이 있는 렌즈면 1/8초도 버틴다. 스마트폰은 야간 모드가 프레임을 스택해 밝기를 올리지만, 네온 테두리의 선명함을 잃기 쉽다. 네온이나 타이포 선이 중요한 장면은 야간 모드를 끄고, 노출 보정을 마이너스 0.3에서 0.7 스톱 정도 낮춘다. 이렇게 찍으면 하이라이트가 날아가지 않고, 후반에 색도만 살려도 충분히 나온다.

ISO는 400에서 1600 사이가 안전하다. 3200을 넘기면 색이 부서진다. 스마트폰은 사실 ISO 제어가 제한적이므로, 화면을 길게 눌러 AE/AF 고정을 걸고 슬라이더로 노출을 줄이는 방식이 낫다. 화이트 밸런스는 혼합광에서 자동이 오작동한다. 따뜻한 텡스텐과 차가운 LED가 섞이면 얼굴은 회색, 배경은 자주색으로 흐린다. 회색 카드가 없다면 흰 냅킨이나 메뉴판을 임시 기준으로 두고 3200~4200K 사이에서 눈으로 맞춘다. 네온이 과도하게 마젠타면 4500K, 블루가 덮치면 3800K 정도에서 균형을 본다.

유리, 거울, 래커 코팅 테이블은 반사가 늘 관건이다. 편광필터는 실내에서 효과가 제한적이지만, 바톱 위의 글레어를 살짝 줄여 줄 때가 있다. 다만 조도가 이미 낮기 때문에 CPL로 1스톱을 더 잃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필터를 쓸 바에는 조명을 살짝 돌려 받는 편이 낫다. 잔의 위치를 5센티만 옮겨도 글레어 패턴이 크게 바뀐다.

##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히 담을 수 있다

요즘 스마트폰의 기본 화각 24~28mm, 망원 50~70mm 두 개만으로도 실내 분위기를 포착할 수 있다. 초광각은 왜곡이 눈에 띄어 좁은 실내에서 오히려 산만해진다. 인물 없이 오브제와 구조를 찍는다면 기본 화각과 망원을 번갈아 쓴다. 야간 모드의 장노출 스택은 인물과 움직임에 약하니 정물, 간판, 복도 사인에서만 활용한다. 손떨림을 잡으려면 벽, 난간, 테이블 모서리를 적극적으로 받침으로 삼자. 셀카봉처럼 길게 뻗으면 미세 흔들림이 커진다.



다음은 현장에서 자주 쓰는 스마트폰 기본 셋업이다.

- 촬영 전 AE/AF 고정, 노출 슬라이더로 하이라이트 보존
- 야간 모드는 네온 선명도가 필요할 때 비활성화
- 기본 화각과 2배 망원을 오가며 배경 압축 만들기
- 셔츠, 잔, 타이포 디테일은 2배 혹은 3배 망원으로 프레임
- 연사 대신 짧게 3장 정도 브래킷으로 확보

## 카메라 사용자라면 알고 갈 세팅

미러리스 기준으로는  $f/1.8\sim 2.8$  사이에서 시작한다. 테이블 위 디테일은 개방 쪽, 네온과 구조를 살릴 때는  $f/2.8\sim 4$ 에서 선을 세운다. 셔터는 1/30초를 기준으로, 정물은 1/10초까지 내려가도 된다. 손떨림 보정이 없는 바디면 1/60초에서 ISO를 조정하자. 프로파일은 콘트라스트가 강한 네온 환경에서는 뉴트럴 혹은 플랫이 후반 유연성이 좋다. RAW로 찍어도 된다. 다만 내부 조명 특성상 색보정에 시간이 걸린다. 현장에서 결과를 바로 공유해야 한다면 HEIF나 JPEG 파인으로 색을 깔끔히 받는 것도 합리적이다.

화이트 밸런스는 켈빈 수동으로 맞춘 뒤, 네온 색을 의도적으로 과장할지, 절제할지 방향을 정한다. 실무에서는 보통 하이라이트를 살리기 위해 WB를 약간 차갑게 두고, 후반에 레드 채널만 부분적으로 올리는 방식이 색 번짐을 최소화한다.

삼각대는 대부분 매장에서 지양한다. 사람 이동 동선을 막고 시선을 끌기 때문이다. 미니 테이블탑 삼각대도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펼치지 말자. 필요하다면 컵받침, 메뉴판, 손목 스트랩을 임시 받침대로 활용하는 편이 안전하다.

## 촬영 매너가 사진을 만든다

셋업과 노출보다 중요한 게 있다. 공간의 흐름을 해치지 않는 태도다. 셔츠룸은 대개 소규모 프라이버시가 핵심 가치다. 사진은 최대한 조용히, 빨리, 간결하게 끝낸다. 셔터음은 무음으로, 플래시는 기본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다. 반짝이는 눈빛과 림라이트를 노릴 수 있다 해도, 맞은편 손님의 시야를 흐트리면 안 된다.

프라이버시를 위해서는 프레임을 끊는 습관이 도움이 된다. 유리잔 윗선 위로는 프레임에 넣지 않기, 거울은 허리 아래만, 배경의 인물이 실루엣으로라도 알아볼 수 있으면 그 프레임은 버린다. 또, 촬영한 이미지를 어디에 올릴지 미리 정해 두고, 동석자에게는 반드시 공개 범위를 확인한다. 동행의 손, 시계, 보조 가방 등으로도 충분히 장면을 만든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디테일이 훨씬 멋지게 보일 때가 많다.

음료나 안주 사진을 찍을 때는 테이블 예절을 앞세운다. 젓가락을 든 동석자가 멈춰 서 지켜봐야 한다면 이미 매너에서 실패한 셈이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변 좌석을 가로지르는 동선은 피하고, 직원이 오가거나 서빙하는 시간을 피해 몇 컷만 빨리 찍자. 무엇보다, 촬영이 길어질수록 주변이 의식된다. 30초 안에 끝내는 리허설을 머릿속으로 해 두면 좋다.

## 사전 체크리스트, 실패를 줄이는 작은 습관

- 매장 촬영 허용 범위를 사전 문의로 확인
- 셔터음, 플래시, 라이브 포토 등 소리와 빛 요소 비활성화
- 마이크로화이버 천, 여분 배터리 또는 보조배터리 챙기기
- 비 오는 날에는 소형 타월과 지퍼백으로 장비 보호
- 찍지 말아야 할 정보, 사람, 로고 기준을 동행과 합의

## 비 오는 밤, 네온과 셔츠의 균형을 맞추는 요령

비가 오면 빛의 경계가 부드러워지고, 젖은 바닥이 거울 역할을 한다. 셔츠의 재질은 광택과 주름이 스토리텔링을 한다. 우산 아래, 가로등과 네온이 섞이는 자리에서 셔츠 소매 끝과 잔의 하이라이트를 맞춰 보자. 하이라이트가 잘려 나가면 흰색이 회색으로 몽그러진다. 노출을 2/3스톱 정도 내리고 촬영한 뒤, 후보정에서 색도만 올리면 질감이 살아난다. 겨울철에는 실내외 온도 차로 렌즈가 쉽게 김이 서린다. 실내에 들어오기 5분 전, 카메라를 가방 깊숙이 넣어 온도 변화를 천천히 주거나, 실내에 들어와 바로 렌즈 캡을 벗기지 말고 2분 정도 기다리면 김서림을 줄일 수 있다.

## 후보정, 과하지 않게 깔끔하게

스마트폰에서는 라이트룸 모바일이나 스냅시드만으로도 충분하다. 기본은 노출 -0.2~-0.5, 하이라이트 -30~-50, 색도우 +10~+25, 블랙 포인트 약간 내리기. 화이트 밸런스는 목표 색을 한두 가지로 정한다. 네온이 셋 이상 섞이면 전체가 회색이 된다. HSL에서 선택한 색 하나만 살리고 나머지는 채도를 줄인다. 클리어리티나 텍스처는 디테일 컷에서만 조심스럽게 올린다. 거칠어 보이면 셔츠가 싸구려처럼 보일 수 있다. 노이즈 리덕션은 색노이즈 위주로 15~25 선에서 멈추자. 과도한 NR은 유리잔의 간결한 선을 흐린다.

RAW 편집에서는 커브로 하이라이트 롤오프를 부드럽게 만들어 네온 과다를 제어한다. 지역 보정 브러시로 글레어만 눌러 주고, 전체 콘트라스트는 과감히 낮춘다. 중요한 건 시선의 흐름이다. 글자가 읽히지 않도록 흐리면 서도, 빛의 방향만 또렷하게 남기는 것이 셔츠룸 특유의 무드와도 잘 맞는다.

## 법적, 윤리적 기준을 정리해 두자

한국에서는 초상권, 퍼블리시티권에 민감하다. 타인의 얼굴, 특정 신원이 식별될 수준의 실루엣, 유니폼과 명찰은 모두 피한다. 매장 내부 장식은 대개 촬영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영업용 로고와 전화번호가 노출되면 곤란해질 수 있다. SNS에 업로드할 경우 위치 태그는 모호하게, 시간 정보는 제거하는 편이 안전하다. 리뷰 성격의 게시물이라면 매장에 먼저 보여 주고 공개 허락을 구하면 갈등을 줄일 수 있다. 보답으로 음료를 하나 더 주문하는 정도의 예의가 좋다. 한국에서는 팁 문화가 일반적이지 않지만, 추가 주문은 모두가 편한 방식이다.

## 안전과 동선, 사소하지만 중요한 것들

한밤 골목은 예측 불가능하다. 셔츠룸 밀집 지역은 주말에 인파가 몰린다. 삼각대를 펼치거나, 길 한가운데 멈춰 서서 앵글을 맞추면 충돌이 난다. 소지품은 가방 한 개로 일원화하고, 지갑과 보조배터리 위치를 습관처럼 점검 하자. 귀가 교통편은 미리 정해 두는 편이 좋다. 심야 버스 막차 시간과 택시 승차 포인트, 대리운전 호출 플랫폼 을 즐겨찾기에 두면 불필요한 대기가 줄어든다. 비 오는 날 금속 계단은 특히 위험하니, 사진보다 발을 먼저 두 고, 손에 잔을 들고 이동하지 않는다.

## 셔츠룸 테마를 사진에 녹이는 작법

셔츠라는 상징을 억지로 드러내지 않아도 된다. 색과 질감, 태도가 주인공이다. 흰 셔츠와 네이비 타이는 네온 블 루와 가장 잘 어울린다. 카프스, 타이 바, 시계 베젤 같은 작은 금속 요소를 배경 빛과 정렬시키면 반짝임이 사진 의 리듬을 만든다. 포즈는 손목을 살짝 비튼 자연스러운 제스처가 좋다. 연출 소품을 추가할 수도 있다. 펜, 명함 케이스, 라이터 같은 매끈한 물건은 반사와 그림자를 동시에 만든다. 다만 로고가 크게 찍히지 않게 중성 소품을 고른다.

인물 없이도 서사를 만들 수 있다. 잔의 경로가 흐르고, 카프스 버튼 구멍에 실오라기가 살짝 튀어나와 있고, 바 톱의 물자국이 남은 장면은 흔한 테이블샷과 결이 다르다. 이런 디테일은 시간의 감각을 전한다. 촬영자가 공간을 존중하며 관찰했다는 메시지가 느껴지면, 사진은 조용한 설득력을 얻는다.

## 현장에서 자주 생기는 문제와 대응

조명이 깜박인다. LED의 PWM 주파수 때문일 수 있다. 셔터 속도를 1/100, 1/50, 1/25처럼 전원 주파수 계열로 맞 춰 보자. 깜박임 줄무늬가 줄어든다.

유리잔 테두리에 이중선이 생긴다. 초점이 잔 테두리보다 안쪽 액체면에 잡힌 것이다. 초점을 테두리로 이동시 키고, 각도를 5도 정도 바꿔 반사광 경로를 틀어 준다.

색이 탁하고 회색빛이 돈다. 혼합광 상황에서 WB가 흔들렸거나, ISO가 너무 높아 크로마 노이즈가 색을 씹은 것 이다. ISO를 한 스텝 낮추고, 노출을 낮춘 뒤 색도만 올리는 전략으로 바꾼다.

렌즈에 지문과 김서림이 남는다. 촬영 전후로 마이크로화이버로 렌즈를 닦는 습관을 들인다. 겨울철에는 실내 외 온도차에 대비해 장비를 천천히 적응시킨다.

직원이 프레임에 자주 걸린다. 동선을 관찰해 리듬을 익히자. 한 테이블에 다녀간 뒤 다음 테이블로 이동하는 패 턴이 생긴다. 그 사이 간격이 촬영 시간이다. 서빙을 방해하지 않도록 컷 수를 최소화한다.

## 정리, 오래 남는 밤을 위한 감각

수원 셔츠룸에서 건질 수 있는 사진은 조명, 반사, 질감이 만든 조용한 장면들이다. 기술적으로는 노출을 낮추고, 색을 절제하고, 흔들림을 억제하는 보수적 전략이 유리하다. 미학적으로는 인물보다 소품과 구조, 텍스처가 주 인공이다. 윤리적으로는 촬영 허용 범위의 명확한 합의, 프라이버시 존중, 공간의 흐름을 지키는 태도가 최우선 이다.

몇 번만 다녀 보면 자리가 보인다. 어느 바톱은 유리잔 하이라이트가 좋고, 어느 복도는 사인의 간격이 리듬을 만 들고, 어느 계단은 금속 난간의 곡선이 멋지다. 같은 골목이라도 비가 오면 다르고, 겨울과 여름의 공기 밀도도 다르다. 이런 차이를 기억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결국 사진을 만든다. 장비와 설정은 출발일 뿐이다. 관찰, 매너, 그리고 돌아보는 마음이 밤의 이미지를 단단하게 붙들어 준다.